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유네스코 등재 이전과 등재 이후

김헌선 (경기대)

1. 머리말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특정한 현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연구자는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선의든 악의든 비난받을 우려가 있다. 엄연하게도 기우가 사실이 되어서 모든 업적과 사례들에서 그 결과가 증명 사례로 산출되어 하늘의 해와 달처럼 빛을 내며 아프게 남아 있는 형해물이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작업 결과만 양상한 뼈처럼 남아서 연구자의 업적이 역사적 증언 자료로 남아있기도 하고 법정 대리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과 이와 같은 결과는 전혀 예기치 않는 것일 수도 있으며, 원하던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우리에게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하므로 여러박빙하면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점은 우리를 경각시키는 비난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현장으로 택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한 연구자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칠머리당 영등굿은 제주도의 관심 여부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라서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지식인이 참여하였고 연구자들의 노력이 절대적인 기여를 했음은 부인할 길이 없다. 보고서로 기여했던 위원으로 기여했던 요로 관계기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 글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 대한 실제 면모를 점검하고, 이 본향당굿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규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칠머리당 영등굿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경위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전후 사정을 말하고, 제도에 의해서 보존되고 관리되는데 따른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 총괄적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집적한 작업이 아니라 탁상공론으로 편안하게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본향당굿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해신을 섬기는 해녀들의 전유물이며, 해녀들의 신앙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녀들의 신앙적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해녀문화의 산물임이 명확하고 해녀의 굿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잠수굿과 일정하게 관련을 지니나, 영등달에 행하는 영등굿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서로 차별화된다. 제주도의 자연환경, 제주 사람들의 문화적 창출, 종교예술적 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굿이 영등굿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제주도의 영등굿은 역사적으로 단일한 성격을 지니지 않았다. 제주

도 전역에서 진행된 세시절기의 성격이 강했으며, 한 때는 전적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갯당에서만 굿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그 성격이 변질되어서 특정한 직군에 종사하는 인물들인 해녀를 위주로 굿이 변질되었다. 또한 오늘날에는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굿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영등굿을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영등굿과 잠수굿 등에 대한 폭넓은 천착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요체를 밝히고 제도권에서 담아낸 결과들이 제공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제주도 사람들이 고안한 결과가 굿이고, 굿의 갈래 가운데 하나가 영등굿이고, 그 굿의 일환으로 거행되는 것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현지에서 수고롭게 나날의 삶을 영위하는 제주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들의 삶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필자의 소박한 생각이다. 그러한 점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의 생각만을 예시하고 널리 의견을 구한다.

2.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면모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굿 자체의 면모에 있다. 영등굿의 일반적 면모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예증인지는 의문이 있지만 영등굿의 실제적 열개가 파악되어야 한다. 그 굿의 세부적 면모를 보고서 이에 대한 굿의 의미를 부여하고 장차 논의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등굿의 독자적 모습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① 초감제
- ① 배례
 - ② 배포도업침
 - ③ 날과국섬김
 - ④ 연유답음
 - ⑤ 신도업림
 - ⑥ 군문열림
 - ⑦ 새드림
 - ⑧ 신청괘·정데우
 - ⑨ 석살림
- ② 추물공연
- ① 추물공연
 - ② 금베리잔
 - ③ 나까시리놀림
 - ④ 지장본풀이
- ③ 요왕맛이
- ① 초감제
 - ② 방광침
 - ③ 추물공연
 - ④ 요왕질침
- ④ 씨드림·씨점
- ⑤ 액막이
- ① 도액막음
 - ② 각산받음
- ⑥ 영감놀이
- ① 영감놀이
 - ② 배방선
- ⑦ 도진

제주도의 굿 의례는 고행의 절차를 갖추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언어적 특성이 굿법에서 명확하게 살아 있다. 제주도의 굿이 살아야 제주도의 고유한 언어가 살아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제주도의 언어만 독자적으로 전승되는 것은 현재의 여건 상 불리하다. 그러나 굿에서만큼은 제한적인 언어층위이기는 하지만 고유의 언어를 전승하는 틀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굿이 전승되는 한 고유한 언어가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어의 고행적 면모가 제주도 굿 의례에 살아 있기 때문에 제주어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까닭이다.

제주도의 굿에서 초감제는 가장 긴요한 절차이다. 서두가 아주 둔중하고 커켜이 여러 절차가 복합되어 있는 특별한 제자이다. 실제로 제주도의 초감제만 이해해도 제주도의 굿을 절반은 이해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제주도 굿에서 가장 긴요한 절차를 감당하고 있는 절차이다. 신을 종합적으로 청하는 절차이면서 굿에서 섬기는 신의 위계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심방들이 흔히 신도업에 해당하는 것을 “젯드리”라고 해서 거의 전도에서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 절차만 알아도 제주도의 어지간한 굿을 해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관념한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본다면 청신-부정 가심-군문 열려서 신이 오시는지 여부의 판가름과 신탁의 전달-신을 초치하여 자리에 앉히는 절차(특별하게 “본향뚝”이 있어서 당굿의 성격을 명확하게 한다)-신과 인간의 만남을 합일하는 신명놀음 등으로 요약

되는 절차라고 간주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는 제주도의 곳에만 있는 신의 초청 절차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다른 고장의 곳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지니고 있으나 매우 소략하게 지니고 있을 따름이고, 서울곳에서 부정곳 정도가 이러한 비중에 맞먹는 거리이다. 초감제는 본향당곳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추물공연은 신에게 흠향할 수 있는 음식인 전물과 술을 접대하는 절차이다. 이곳은 앓은곳의 형태로 진행하며, 특별하게 시리떡을 찌서 이것으로 신에게 대접하는 놀이를 하는데 이것을 '나까시리놀림'이라고 한다. 나까시리를 도전을 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본풀이를 이어서 구연하는데 이 구연하는 본풀이는 흔히 <지장본풀이>와 같은 것을 구송하게 된다. 이 본풀이는 사나옴장단에 맞추어서 복과 장귀만을 동원하여 반복창의 형식으로 불려나가게 된다.

요왕맞이는 본향당곳에서 구성된 맞이곳의 형태이다. 맞이도 곳의 형식으로 전개되므로 특정한 절차들이 갖추어져 진행된다. 초감제를 다시 하는데 본향당신이 들어오는 과정인 '본향툄'을 하지 않고, 신과 만나는 석살림은 없다. 형식은 본향당곳의 초감제와 다르지 않게 진행된다. 용왕을 맞이하게 되면 더불어서 바다에서 죽은 무주고혼들에 대한 위무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흔히 "방광침" 또는 "방방침"이라고 하는 형식이다. 방광침은 소미가 대영을 들고서 사설의 절차에 맞추어서 불려나가게 된다.

요왕질침은 요왕이 오가는 길을 말과 특정한 요왕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질침의 형상을 하게 된다. 질침은 요왕질을 돌아보고, 요왕질침을 구체적으로 언어와 행위로 일치시키면서 구연하면서 행위를 한다. 마지막에 댕가지로 상징되는 요왕문을 뽑아서 요왕문열림을 하는 것으로 세분하여 연행한다. 질침의 형식을 요왕에 맞춰서 진행하면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씨드림과 씨점은 영등곳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당밧을 경작하는 상징적이고 주술적인 의례를 행하는 절차이다. 이 씨를 누가 뿌리는지는 의미가 모호하지만 생산력을 드높이고 바다 해산물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점에서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주체가 요왕인지 영등신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채 이 절차를 연행한다. 씨점은 돛자리에 뿌려진 좁쌀의 형상을 보고 이를 통해서 주술적인 점사인 바다 해산물의 풍흉을 판단하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액맥이는 마을에 굶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는 절차이다. 도액을 막고, 단골들이 각산을 받는 절차를 하고 있어서 의례적으로 막바지에 하는 주술적인 기능이 높은 곳거리이다. 이어서 영감놀이를 행하는데 과연 여기에 이 절차가 들어가는지는 불분명하다. 영감놀이는 영감의 내력을 구송하면서 내력을 풀고, 영감놀이 대목에서는 돼지고기, 술, 떡 등을 먹이면서 대접하고 배방선을 하면서 이 절차를 마친다. 도진울(은) 신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보내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다.

영등곳으로서의 면모나 영등신의 내력을 말하는 독립된 본풀이나 절차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영등하르방에 관련된 신화가 실제로 예사

사람의 구전신화로 전하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치가 이렇다면 본향당굿의 절차에 영등굿이 복합되면서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본향당굿과 영등하르방신앙이 습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향당굿의 핵심인 초감제와 요왕맞이, 여타의 부속거리 등이 골간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것은 특별한 면모이다. 그 어디에도 영등하르방의 본풀이가 없고 그 절차도 없는 것을 통해서 발견되는 근본적 의문이다.

제주도의 칠머리당 영등굿은 본풀이, 맞이, 놀이 등이 입체적으로 연계되고 복합된 종합적인 의례임이 분명하다. 언어적 고층위도 존재하고, 문학적 성과가 높은 말명과 본풀이 등이 진정하게 배열되어 있다. 또 모의적인 주술성에 입각한 유감주술적인 기원과 상징적 행위 등이 풍부하게 구현되고 있다. 저열하지만 상징적인 성격이 높은 놀이 등이 아우러진 예술성과 주술성이 풍부한 종교적 제전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매인심방과 단골들이 서로 합치되어 해마다 칠머리당에서 연행을 하는 특성이 이 영등굿에 있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주도의 칠머리당 영등굿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로 분절되고 켜켜이 대목마다 특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의례 절차에 대한 일정한 선후 말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확실히 제전으로 여전히 기능한다. 각각의 굿법을 익힌 심방들이 여전히 공동체적 전승과 무형문화적 속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구체적인 절차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생활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이고 집단적 기억 속에서 공유되고 있는 생명체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살아 숨쉬는 신화이고 의례임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3.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의미 환기

이 글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둘러싼 문화가 해녀문화의 산물임을 명심하고 이 정체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요점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모두 타당하고 합당한 견해가 도출되었다. 칠머리당 영등굿이 영등굿의 일환으로 행해지던 해녀들의 의례이고, 특정하게 칠머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던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굿이라고 하는 점은 이미 선명하게 규명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¹⁾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그 요체가 비교적 선명하다.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그간 잘 해명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 점을 요목으로 밝혀서 해명하고자 한다.

- ① 영등하르방신화
- ② 영등제와 당제 체계
- ③ 해녀 상단궐 전유

1) 문무병·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5.
<<거센 찬바람을 기운찬 바람으로-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11.

④ 바닷바람의 경작

① 영등하르방신화: 영등하르방신화는 각별한 것인데 아직 그 정체가 정확하고도 선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외눈배기땅에 있던 하르방이라고 하는 구전신화도 있고, 영등대왕 또는 황영등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해되어 몸체가 제주도의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다고도 하는 문헌신화도 있다. 구전과 문헌 양면에서 풍부하게 전승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 신화이다. 칠머리당 영등곳의 신위에서도 일곱 분의 신위에 이러한 인물의 위폐가 존재하므로 각별한 신앙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인지해 둘 점이 있다. 그것은 이 신화는 당신본풀이로 되어 있지 않고 제주도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신화라고 하는 점이고 구전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전산문으로 전해지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당맨심방에 의해서 구전신화와 구전서사시의 형식으로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특정한 지역의 당이 있었다고 하나 과연 존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 그쪽 당에서만 전영등이라고 하는 신이 모셔진다는 것인지 그 보편성의 추이를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더욱 확장적으로 이해할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영등신은 제주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천체기후를 관장하는 인격신이라는 관점에서 육지의 영등할매와 일정하게 궤를 함께 한다. 그러한 공통적 제향의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단위의 당신앙적 형태로 특정하게 발전한 것은 제주도만의 특출한 창조이고 돌출한 신앙적 발전의 형태이다. 북군이든 남군이든 영등곳의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시킨 사례는 거의 제주도 전역의 현상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더욱 소중한 점은 이 신화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더 가열되어 진전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이 영등하르방이 죽음을 당하고서 이 몸의 사체가 바다의 해산물이나 어로 작업의 근간이 되는 소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다의 경작물과 관련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는 전형적인 하이누벨레(Hainuwele)신화 또는 데마신(Dema deity)신화의 그것과 관련을 지니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²⁾ 사람의 살해와 사체 분배 후 그 사체에서 곡종인 감자, 야자, 옥수수, 밀, 보리 등이 나와서 인류의 먹거리를 항구적으로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 설정이다.³⁾ 영등하르방신화에서 영등하르방이라고 하는 신의 죽음이 인간의 안위와 관련된다고 하는 설정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영등하르방신화는 한 가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없는 다중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신화이다. 천체기후인 바람의 신, 인간의 안위를 지켜주는 수호의 신, 자신

2) 김현선, 『영등하르방이야기』의 Hainuwele신화-Cyclopes신화적 성격과 복합, 2014년 9월.(미발표)

3) 김현선, 제주도 '외눈박이' 괴물이야기의 동심원적 확장 및 변형 연구, 2000. (미발표 논의)

김현선, <조족잇당신본풀이>의 전승 유형 연구, <<한국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12.31.

김현선, 제주도 당제의 신화 생명체계 연구 -제주도 영등제와 영등하르방신화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8권, 영주어문학회, 2014, 5-42면.

김현선, 『영등하르방이야기』의 Hainuwele신화-Cyclopes신화적 성격과 복합, 2014년 9월.(미발표)

의 몸체로부터 인간의 먹거리인 해산물을 제공하는 신 등 여러 모로 다양한 성격을 지니면서 이것이 제공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육지의 동계 신화에서는 두 가지 또는 한 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모두 온전하게 지니고 있으면서 신화와 의례의 양면에서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② 영등제와 당제 체계: 제주도의 당제 또는 당굿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 당제의 체계 속에서 영등제가 작동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소인이다. 우리는 이처럼 제주도 사람들이 일구어낸 당제 체계 속에 영등굿이 작동하고 기능하는 점을 종종 잊고는 한다. 그러나 그 점을 간과하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당제체계는 제주도의 당에서 별이는 일련의 체계적 신앙행위이다. 이 당제는 일정하게 자연의 생명 주기와 인간의 한 해 주기가 서로 상합하고 상극하면서 이루어낸 복합적 주기의 산물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칼렌다 속에서 일정하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파락과 순응이 이룩된 결과 이러한 당제체계를 이룩하였다. 필자의 관점에서 당제체계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갈등, 특정 주기의 상극과 다른 주기의 상합이 일군 복합적인 생명 주기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생명 주기, 인간의 생산 주기, 우주의 자연 주기 등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조화로운 조절을 필요로 하였다. 각각의 주기는 태양의 주기와 지구의 주기라고 하는 더 큰 질서와 복합에 의해서 조절되고 종속되면서 다양성을 갖추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주기를 훌륭하게 구조화하여 자신들만의 조건 속에서 특별하게 상합하고 상극하는 일종의 생명체계를 당제로 구현하였다.⁴⁾ 이를 우리는 생명체계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이 생명체계는 일종의 제주 신앙 신화 에코 시스템(Jeju Bilief Myth Eco System)이라고 지칭하여도 무방하다. 영등굿의 전반적 구성과 분포, 그리고 민간에서 전승하는 신화들의 체계적 관련이 여러 층위로 얽혀 있는 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엄존하고 있다. 논리적 해명에도 손색이 없는 일종의 시퀀스(séquence: 표면상의 이야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어지는 사건들)와 도식(schème: 숨은 내용, 수평으로 또 수직으로 여러 목소리가 중첩되고 병행되는 멜로디 같은 것)을 요해하는 준거를 동원하여 해명 가능하다고 판단된다.⁵⁾

4) Hitoshi Watanabe, *The Ainu Ecosystem: Environment and Group Structure (American Ethnological Society Monograph: No 54)*,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3.

5) Claude Lévi-Strauss, *La Geste D'Asdiwal(1), Anthropologie Structurale Deux*, Libraire Plon, 1973, pp.175-233 ; *The story of Aadiwal, Structural Anthropology 2*, Penguin Books, 1977, pp. 146-197

나스강 유역의 침쉬안 인디언의 아스디왈 신화를 분석하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해낸 것은 정말로 주목을 요하는 제주도 신화 이해의 방증적 지침이 된다. 그 핵심을 정리하면, “한편으로는 신화가 진행되는 다양한 층위들(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우주적 등)을 구별하여 비교한다. 각 층위와 그에 고유한 심볼리즘은 전 층위의 밑에 깔린 공통된 논리구조의 한 변형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이한 이본(異本)들(Franz Boas가 4개의 이본을 수집하였다)을 비교하고, 그들 사이에서, 또는 그들

제주 신앙 신화 에코 시스템(JBMEC)은 제주도 사람의 지역적 정체성인 집단 곧 마을주민을 하나로 묶으면서 이들 집단이 어떠한 음식을 먹고 수집하며, 섬이라고 하는 환경 조건 속에서 어떻게 협업하고 지역적으로 특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제주 사람과 제주 바다, 그리고 섬의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체계를 보여주는데 적절한 이해의 프레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 체계는 당제가 신년과세제(1월), 영등제(2월), 마불림제(7월), 시만곡대제(9월·10월) 등으로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이는 철저히 경험된 집약의 체계적 구성이고, 농사 주기와 어로주기와 직접적 관련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서 자연의 생산을 정리하고 수확하는 주기와 관련된다. 더 나아가서는 곡종의 번식이나 가축물의 번식, 인간의 수확에도 깊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난다. 삶의 환경과 기반, 그것을 구조화해서 일련의 절기로 나타내고, 이를 당신의 주관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진 결과물이 곧 당제체계이다.

따라서 영등제는 이러한 생명체계인 JBMEC 내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영등제가 단일하게 전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영등제는 바다의 어업과 깊이 있게 관련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독자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그러한 체계 속에서 현저하게 다른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결과물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겠다. 칠머리당은 맞이-놀림-보냄 등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고유성을 지닌 영등굿이 된다.

③ 해녀 상단골 전유: 전유는 카톨릭의 전례에서 나온 말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서 활용하고자 한다. 종교에 국경이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이는 전유(專有, Appropriation)을 말한다. 이에 입각하여 칠머리당 영등굿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지 독자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굿인 영등굿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은 삶을 살고 그 기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 가운데 영등굿의 신격을 믿고 그 신앙적 체계에서 온전하게 삶을 구가하는 인물들이다. 신, 당맨심방, 단골 등이 진정한 주체이다. 이 가운데 누가 진정한 주체인가? 이 신앙을 실행하고 온전하게 전유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신앙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당맨심방은 조력자에 불과하다. 신은 실재하는가? 신은 상징적이고 표상에 해당한다. 진정한 주체는 단골이고, 단골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상단골이 된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건입동 이른 바 건들개라고 하는 마을에서 하는 곳이고, 이곳을 주도하는 인물들은 이 마을 사람들이 된다. 건들개는 산짓내와 산짓물이 있으며 특정하게 포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마을 중심으로 여전히 생업을 하게 되고, 그곳의 배산처럼 사라봉과 칠머리당이 자리하며 에두르고 있어서 굿의 지리적 환경이

중 어떤 것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편차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같은 주민인 침쉬안(Tsimshian) 인디언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이 불일치는 서로 다른 믿음이나 언어 또는 제도들로 설명될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입각하여 제주도 신화와 당제의 관계를 연결시켜 새삼스러운 논의를 한다.

된다.

칠머리당은 건입동의 본향당이고, 이 본향당에는 당신의 위패가 둘로 마련되어 있다.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 요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을 당신으로 모시고 있으며, 다른 당에 있던 남당하르방과 남당할망, 아울러서 영등대왕(靈登大王)과 해신선왕(海神船王) 등을 함께 모시고 있다. 당신본풀이는 “도원수감찰지방관은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천하명장이다.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자 이를 해결하는 공을 세운다. 나중에 용왕국으로 가서 요왕해신부인과 혼인한 다음 함께 제주도로 돌아와 칠머리당의 신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건들개의 상단골은 굿을 이끌고 심지어 모든 단골들까지도 다스리는 존재이다. 오직 했으면 “마흔 여덟 상단골, 서른 여덟 중단골, 스물 여덟 하단골”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만들어졌을까? 단골이 단골을 다스리고 단골이 당매인심방을 다스리는 체계, 심지어 단골들의 굿까지도 하도록 조성하는 구조,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당매인심방도 바꾸고 굿의 전략과 내용까지도 거래하는 특정한 형태가 제주도의 당 굿이다.

해녀들이 주관하고 자신들의 소망과 신앙적인 것들에 의해서 전유하고 있는 것이 칠머리당 영등굿이다. 본향당신과 영등신의 적절한 조화, 불박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해녀들의 전유를 온전하게 하는 본향당신, 외지에서 떠들어 와서 여러 가지로 간섭하고 본향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며) 주기를 형성하는 영등대왕신은 결국 건들개 마을 사람과 단골들의 생업이나 안녕과 관련되는 것이다. 해녀들의 전유에 의해서 이들의 외적 삶과 내적 삶 모두를 규정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칠머리당 영등굿이 된다.

④ 바닷빛의 경작: 칠머리 영등굿은 해녀들의 전유에 의한 굿이기 때문에 본향당 굿에서 핵심적인 절차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씨드림과 씨점이다. 씨드림에 의해서 바닷의 생산물의 풍요와 씨를 뿌리는 행위를 보여준다. 이는 영등하르방신화와도 일치되는 면모이고 외눈백이에 의해서 몸이 갈라져서 자신의 시신을 바다에 주는 행위와 상징적으로 일치한다. 그것은 곧 유감주술의 원리에 의한 생식력 제고의 구실을 하게 된다.

씨점은 주술적 점사의 면모를 지닌다. 씨망텅이를 들고 춤을 추면서 이를 던지는 행위를 하고 반복하다가 씨점을 친다. 씨점의 핵심은 신자리에 깔려진 좁쌀의 모습을 보고 그 뿌려진 모양에 의해서 어획물의 풍흉과 형상을 점치는 것으로 주술적 기원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겠다. 씨드림과 씨점은 별개의 원리에 의해서 마련된 것인데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서로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것은 바닷빛의 경작이라고 실제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씨드림이 확실하고도 절실한 행위의 모방이라고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바닷도 빛이고 바닷의 구획된 경작지가 해녀들에게 있다고 하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논밭을 갈아서 자신의 생산량을 제고하는 행위를 바닷에서 하

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건들개 포구의 바당밧에 이름이 있고 이에 의한 구체적인 구획이 있다. 바당밧의 이름은 흔히 '여'라고 하는 이름들로 되어 있다. 이곳을 관장하고 이곳의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그곳에서 일정한 생업을 하는 해녀들이 이를 육지 위에서 밧을 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례적 절차이다. 실제의 사회생업적 기반을 의례에 흡수하여 이를 재현하면서 바당밧을 관장하면서 경작하는 것이 긴요한 의의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실제 삶이 먼저인가 의례적 행위가 먼저인가? 그 어느 것도 단언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해녀들의 진정한 삶의 면모가 영등굿을 매개로 하면서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실제와 의례를 복합적으로 연동시키면서 이를 구현하는 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의례적 속성은 이들의 신성한 외경감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도모를 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다에 임자가 있고 주인이 있어서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고, 삶의 근간이고, 생업의 터전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건들개 바당밧은 전통이고 문화적 창조의 결과물이고, 그 뼈대 위에서 굿이 행해지는 것이다.

4.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문화재 지정 경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전제는 원론적 차원의 논의이다. 본향당신, 영등신, 당매인심방, 단골 등으로 굳어진 체계는 자연태적 관계의 소산인데 이를 일정하게 관과 지식인들이 나서서 문화재로 관리하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문화재관리국을 필두로 하여 이 칠머리당 영등굿을 영등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 노력이 일군의 학자들 노력으로 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는 광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자랑찬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마지 못해서 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진실로 고민하고 반성하게 된다.

- ①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②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이전과 이후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거스를 수 없는 과거의 강요당한 망각이 가속화되었다. 과거가 온전할 수 없고, 과거와 현재의 단절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다. 과거가 송두리째 뺏혀나갈 때에 과거의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렇게 얻어진 것이 바로 문화재로 과거의 유산을 지정하는 작업이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가 된 사정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1980년 11월에 안사인심방을 예능보유자로 하고 칠머리당 영등굿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었다. 다른 굿도 다 많은데 왜 하필 칠머리당 영등굿인가

하고 반문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답변은 집단의 전승을 중시하고 개인이 하는 곳을 지정하는 것과 달리 전승의 원활함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증언한다.

칠머리당이 제주도를 대표한다고 하는 선택의 저변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아쉬움이나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큰곳보다는 칠머리당영등굿을 선택한 것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있었으리라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반추하여 보니 무엇과 무엇보다 전체의 위기가 닥쳐왔으니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이면이 읽히게 된다. 그것 자체도 현저하게 위축되고 전승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승의 활로를 개척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을 지정한 결과 전승 자체에 심각한 왜곡과 변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본향당, 당매인심방, 단골 등이 현실로 존재하는 관계와 체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를 통째로 도울 수 있는 길이 더욱 중요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실상을 뒤따르지 못한 결과 생긴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계 가운데 단골과 마을사람들이 일정하게 뒤로 물러서고, 행사가 빈번하게 되면서 행사곳으로 변질되고, 마을의 당곳이 지니는 축제적인 경로를 차단하자 결과적으로 굿이 손상되고 형해만 남게 된 것은 커다란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 이들이 하는 행위의 전량, 굿이 지니는 본연의 의례적 속성이 망실되었는지 깊은 고민에 이르게 된다. 자생자화할 수 있는 터전이 사라지고 온통 새로운 관계 속에서 행사곳으로 되는 아픔을 어찌 할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국가에서 행한 일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라고 하는 명칭만 부여하였다. 그것의 본질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중첩과 동시에 이들 사이의 에너지가 분출되어야 할 방향을 온전하게 잡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것은 지원금과 행사라고 하는 테두리가 옥죄는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참으로 전망 부재의 정책과 제도를 한탄하게 된다. 신성에 상업성, 정치성, 경제성 등이 도입되고 대체되면서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고안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특정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된 것도 문화재 제도에서 원치 않는 바였다고 추정된다.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민족국가 범위를 넘어서는 데서 이루어졌다. 허울 좋은 미명 아래 국제간의 협약이 존중되고 자신들의 헌장을 제정하면서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를 프랑스 파리 제 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2003년 10월 17일에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의거하여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 근본적 준거와 이치는 비교적 간명하고 쉽사리 수긍할 수 있는 바이고 의의가 있다. 그 핵심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

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

2. 제 1항에서 정의되었듯이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b) 공연 예술;
- c) 자연과 우주에 관한 사회적 관습;
-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e) 전통 기술.⁶⁾

이 협약의 정의에 입각하여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이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2009년 9월 30일에 등재되었다. 이 등재는 제주도의 자랑이자 현저하게 제주도의 무형문화유산이 긴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물이 된 셈이다. 이처럼 강력하고 의의가 있는 것이 된 것은 정말로 축하받아 마땅하다.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재에서 세계의 문화유산이 된 것은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등재된 이후에 사회 저변에 인식을 제고하고 각인한 바 있으나, 그것 이상의 본질적 의미는 부여받지 못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 허명일 따름이고 명실상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 일반의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6) https://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18&page=1&SearchItem=&searchStr=&Gubun=&Cate= 2016년 6월 25일 오전 8시에 접속하여 얻은 자료이다.

1.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and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us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nsideration will be given solely to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2.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s manifested inter alia in the following domains:

- (a)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b) performing arts;
- (c)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 (d)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 (e) traditional craftsmanship.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오히려 그 때문에 행사에 동원될 따름이고,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서 가치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나의 장식에 지나지 않는 명패나 명함에 새길 만한 의미를 가졌을 뿐이다. 그것은 명실상부한 것과 거리가 있다.

말은 공교로우나 이 단체의 구성원이나 본래의 집단 구성원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다고 하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세계화의 시대에 지방화도 달성하지 못하고, 지방화 시대에 세계화도 되지 않은 모순이 잠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고, 요동치는 격론의 장에 서 있다는 뜻이다.

세계문화의 중심부·중간부·주변부 등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부와 중심부의 관계가 모호하게 된 사정이 자연스럽게 부각된다.⁷⁾ 그렇지만 주변부의 작은 것이 중심부의 큰 것이 된다고 하는 점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심부의 핵심이 주변부의 특성과 연결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참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면모를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상정된다.

세계문화의 온당한 이상은 이제 중심부와 주변부가 언제든지 연결되는 특성을 지녀야 마땅하다. 인류의 대표 목록이 되는 것이므로 중심부와 주변부가 공교롭게 맞물려서 제주의 것이 세계의 것임을 알려주는 면모를 과시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상이 성취되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공감하는 결과를 낳았는지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에 준하는 호혜균등한 상호 이해와 실질적인 내용을 자각하고 이를 구현하려고 했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 이전과 이후는 실제의 문화유산적 면모가 달라지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결과들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국제적 협약 정도를 준수하고 이를 실례로 지정했다고 하는 혐의를 지우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대표목록이 많아지고 서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각도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지도 심히 걱정스럽고 의문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한 결과를 두고 문제를 삼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체로 보이지 않는다.

5. 제도의 문제

7) 이 개념은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구상한 세계체제론의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이고, 조동일의 문명권 분할론에서도 등장한다. 두 이론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는 자본주의적 관점의 세계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명권의 중심부·중간부·주변부를 상정하면서 시대사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vol.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London: Academic Press, 1974;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vol. II: Mercantilism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1600-1750*.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vol. III: The Second Great Expansion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1730-1840's*. San Diego: Academic Press, 1989; 조동일,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지식산업사, 1999.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이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것과 달리 여전히 지속적으로 남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 그것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 각도에서 문제로 되며, 문제의 층위가 크게 갈라진다. 그것을 정리해서 간명하게 말한다면, 4종의 보존 문제와 3종의 제도 문제로 풀어서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어고(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과 달리 더욱 절실한 문제와 직면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처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 ① 4종의 보존 문제: 변화 versus 원형
- ② 3종의 제도 문제: 보존 versus 보호

① 4종의 보존 문제: 이는 진정으로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의문문을 만들어 보면 비교적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직면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해소된다. 4종의 보존 문제는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누가 보존할 것인가?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4종의 문제 층위를 자아내게 된다.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가? 굿의 내용과 형식 가운데 어느 것을 보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한 것은 아니다. 특정한 대목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보존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원래대로의 원형적인 것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처지와 환경에서 변화된 것을 보존할 것인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칠머리당 영등굿의 보존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핵심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대상이나 목적에 대한 진정한 성찰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누가 보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답변이 간단하지 않다. 이 굿을 직접적으로 보존해야 할 주체는 뚜렷하다. 굿을 하는 당사자들이 일차적으로 주체여야 한다. 단골과 심방 가운데 우선 순위를 매길 수 없다. 둘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지원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체의 선택이 항상 갈림길을 제시한다. 게다가 지원의 향배나 항구적이고 지속적 지원이 칠머리당 영등굿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주체에게 있는 것인지도 실상을 잘 모르겠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그 노력이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한 것은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제자와 신도 등에게 이익이 골

8)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두 저작에서 감발된 바이다. 이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저작인 마이클 오퍼츠 견해이다. 그의 명료한 글을 통해서 문제의 파악과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Michael Oppitz, *Oral Traditions in Himalayan Shamanic Practise, Discovery of Shamanic Heritag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9, p.51

Mihaly Hoppal & Gabor Kosa, *Rediscovery Of Shamanic Heritage(Bibliotheca Shamanistica)*, Akademiai Kiado, 2004.

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면모가 곳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이를 지켜내는 노력 자체가 이득으로 치닫게 되면 쉽사리 공동체적 기반이 와해되고 집단의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 게다가 특정한 세력들이 개입하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바이다. 자족적인 면모를 가지고 자생하지 않으면 생기는 부작용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할 수도 있음이 사실이다. 온전한 신앙적 행위를 하는 굿을 자족적으로 존속시키지 않고 관이나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개입하여 굿을 존속하려는 것은 문제는 없는가 항상 반문해야 한다. 영등굿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제주도의 다른 굿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당굿과 집굿 가운데 더욱 화급한 것이 어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진실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 결과를 두고 노력이 핵심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고유하게 인간의 제주도 굿의 정통한 면모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둘러싼 보존의 4중문제는 결과적으로 재래의 원형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변화된 변형을 보존할 것인지가 깊은 관련을 가지는 최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보존의 진정한 답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존재와 관계 없이 세계는 시작되었으며, 세계는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저층에서 이어져온 제주도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제주 칠머리당의 영등굿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등굿의 실상이 제주도의 굿 가운데 원형을 장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만대유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② 3중의 제도 문제: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제도가든 세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든 이 제도가 지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제도가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고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3중적인 면모를 지닌 문제의 연쇄를 지어내게 된다.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지만 거기에 오히려 역행하지 않는가? 보존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쇠퇴시키는 힘에 영합하고 있지 않는가? 지식인들이 고안한 정책과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을 제도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역행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제도의 심각한 손상 부위로 연결될 수 있고 멸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목에 대한 깊은 반성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제도가 실상을 훼손하고 원형이라고 하면서 변화를 막게 하고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제도가 형식과 내용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보존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쇠퇴시킬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건들개(건입동)를 중심으로 하는 단골민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지나친 제도의 개입에 의해서 대상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면서 점차로 자멸하게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온 터이다.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고 이를 쇠퇴시키는 문제로 귀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실상에 대한 보존의 노력을 일으키고 새롭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도를 창조하고 특정한 문화재 제도를 고안한 국내의 학자와 지식인, 그리고 공무원, 아울러서 세계에 소개하고 일정하게 개입을 한 국외의 학자와 제도의 관계 학자 등이 전체적인 문화유산을 원래의 취지에서 어긋나도록 하면서 역행하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방향이 항상 점검되고 감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도의 3중문제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으며, 미묘한 차이점에 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고 지식인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

위에서 살핀 것을 종합한다면, 가장 극렬한 핵심적인 문제는 보존(preservation)과 보호(safeguarding)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에 걸려 있다. 전통이나 기원을 보존하고 보호한다고 하는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참으로 잘 된 정의라고 하더라도, 말을 그럴싸하게 쓴다고 해도 진정한 가치와 의의를 부여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이나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점을 고려하면서 제주도의 문화적 보배인 굿문화의 전통이 칠머리당 영등굿을 구실삼아서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세 한국의 현자 박지원이 말한 바를 상기하면서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전통적인 문제에 대한 일련의 고민과 의미를 환기하면서 이를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문제에 대한 자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2세기 전에 쓰여진 글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오늘날의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일깨우고 있음을 환기해야 한다.

아! 소위 '법고'한다는 사람은 옛 자취에만 얽매이는 것이 병폐이고, '창신'한다는 사람은 상도(常道)에서 벗어나는 게 걱정거리이다. 진실로 '법고'하면서도 변통할 줄 알고, '창신'하면서도 능히 전아하다면, 요즈음의 글이 바로 옛글인 것이다. <중략>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하늘과 땅이 아무리 장구해도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해와 달이 아무리 유구해도 그 빛은 날마다 새롭듯이, 서적이 비록 많지만 거기에 담긴 뜻은 제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날고 헤엄치고 달리고 뛰는 동물들 중에는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산천초목 중에는 반드시 신비스러운 영물(靈物)이 있으니, 썩은 흙에서 버섯이 무럭무럭 자라고, 썩은 풀이 반디로 변하기도 한다. 또한 예에 대해서도 시비가 분분하고 악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문자는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림은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⁹⁾

우리가 사는 진정한 목적과 목표, 그리고 시간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옛것의 원형을 충실하게 보존하는게 바람직한가? 자신의 시대에 맞는 변형과 변환이 필요한가? 이 부조화로운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진정한 법고창신이라고 하는 중용은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가? 하는 등등의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점을 새롭게 인지하면서 바람직한 기여와 적절한 절제야말로 학문을 하고 지식을 창조하는 이들의 고민이 아닐까 하는 점을 반성하게 하는 글이다.

6. 마무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제주 사람들의 온전한 창조의 결과물이고,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고안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 굿을 하는 주체를 도외시하고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 얻은 결론이다. 평범하고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간 자존감의 일부는 행사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굿이 살아나게끔 조성한 것은 전혀 없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행사굿으로 전락하여 특정한 이들의 소개장으로 전락한 비운을 겪고, 한때 특정한 이익집단에 의해서 굿이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제도권에서도 전혀 원하지 않던 결과이다. 영등굿을 보러왔던 외지 사람들이 이내 실망하고 그것이 영등굿의 모든 것인 양 여기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던 것이다.

2월 영등달에 품속을 파고들어 미치게 만드는 영등바람을 맞으며 굿을 하던 단골들과 심방들의 노고가 진정한 것이다. 이를 항상 대비하였던 이들이 긴요하다. 바다에 의존하며 바다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영등달의 휴지기를 신앙적으로 승화한 이들이 제주도 사람이다. 금채기를 설정하여 바다의 주기를 조절하고 바다의 온생명을 고양하던 정신이 영등굿을 하는 핵심이 된다. 그 전통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그 정신의 요체를 오늘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 된다.

제주도는 이제 세계자본과 세계화의 본래적 각축장으로 전락하였다. 특정 외래자본이 유입되고, 토착자본이 심하게 외래자본의 격랑에 요동치고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토종을 지켜나가는 정신이 제주도를 건져낼 수 있다. 제주도 굿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우리를 성스러운 것으로 안내하고 제주도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굿이 제주도의 영혼이고 제주도의 마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9) 朴趾源, 楚亭集序, <<燕巖集>>, 민족문화추진회, 1978.

噫 法古者 病泥跡 勗新者 患不經 苟能法古而知變 勗新而能典 今之文 猶古之文也 <중략> 由是觀之 天地雖久 不斷生生 日月雖久 光輝日新 載籍雖博 旨意各殊 故飛潛走躍 或未著名 山川草木 必有秘靈 朽壤蒸芝 腐草化螢 禮有訟 樂有議 書不盡言 圖不盡意

하찮은 헛된 믿음, 전근대적인 것, 그까짓 곳이 그러한 구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면 굿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을 되돌아 볼 일이다. 제주도 굿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굿은 샛된 미신이라는 말인가? 미신인데 제주 한 곳의 해녀들이 왜 정성을 그렇게 드리고 있으며, 몇 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 뼈대를 유지하면서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가? 세계에서 지식인 집단과 정책과 제도를 관할하는 곳에서 왜 제주도의 영등굿을 세계무형유산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제반 문제를 생각해 볼 일이다.

인류 역사의 보편성의 한 단계를 굿처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다.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는 지극히 짧지만, 한 때 온생명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주어진 부분에 인간의 삶을 다 하려고 했던 지구의 역사에 대한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굿으로 오늘날 남아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제주사람의 굿에 대한 이해가 결과적으로 인류의 보편사를 아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자연과 아우르고, 인간들의 노력으로 자연을 숭배하던 아름다운 시대의 살아 있는 증거가 굿이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의 이목이 제주도에 집중되고, 세계인들이 제주도 사람들이 창조한 무형문화유산을 보려고 하는 진정하고도 확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참고문헌>

- <<거센 찬바람을 기운찬 바람으로-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특별자치도·제주 문화예술재단, 2011.
- 김헌선, 『영등하르방이야기』의 Hainuwele신화-Cyclopes신화적 성격과 복합, 2014년 9월.(실천민속학회 발표)
- _____, <조록잇당신본풀이>의 전승 유형 연구, <<한국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12.31.
- _____, 제주도 '외눈박이' 괴물이야기의 동심원적 확장 and 변형 연구, 2000. (미발표 논의)
- _____, 제주도 당제의 신화 생명체계 연구 -제주도 영등제와 영등하르방신화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8권, 영주어문학회, 2014, 5-42면.
- 문무병·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5.
- 조동일,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지식산업사, 1999.

Claude Lévi-Strauss, La Geste D'Asdiwal(1), *Anthropologie Structurale Deux*, Librairie Plon, 1973, pp.175-233 ; The story of Aadiwal, *Structural Anthropology*

2, Penguin Books, 1977, pp. 146-197

Hitoshi Watanabe, *The Ainu Ecosystem: Environment and Group Structure (American Ethnological Society Monograph: No 54,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3.*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vol.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London: Academic Press, 1974;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vol. II: Mercantilism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1600-1750.*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vol. III: The Second Great Expansion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1730-1840's.* San Diego: Academic Press, 1989.

Michael Oppitz, Oral Traditions in Himalayan Shamanic Practise, *Discovery of Shamanic Heritag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9, p.51

Mihaly Hoppal & Gabor Kosa, *Rediscovery Of Shamanic Heritage(Bibliotheca Shamanistica)*, Akademiai Kiado, 2004.

https://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18&page=1&SearchItem=&searchStr=&Gubun=&Cate= 2016년 6월 25일 오전 8시에 접속하여 얻은 자료이다.